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기획 · 편집 EBS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인쇄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인터넷 http://edu.mpva.go.kr
전 화 1577-0606(대표)

국가보훈처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차 례

독립

1장 3·1절(3월 1일)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4월 13일) 06

2장 광복절(8월 15일) 14

3장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24

호국

4장 현충일(6월 6일) 31

5장 6.25 전쟁(6월 25일) 38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44

6장 턴투워드부산(11월 11일) /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 51

민주화

7장 3.15 의거(3월 15일) 58

8장 4.19 혁명(4월 19일) 66

9장 5.18 민주화 운동(5월 18일) 72

한눈에 보는 보훈기념일 80

1장 ❶ 3·1절 3월 1일

❷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3·1절(3월 1일)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4월 13일)

3.1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1919년 3월 1일은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여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날이에요. 3.1 운동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힘이 약한 나라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또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 유학생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일제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펼쳤던 2.8 독립선언과 함께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폭발한 민심 역시 3.1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3.1 운동은 종교 단체의 지도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사태가 너무 폭력화할 것을 우려한 민족 대표들이 약속 장소인 **탑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뒤 스스로 체포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요. 그러나 당시 종로 탑골공원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따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면서 마침내 3.1 운동의 물결은 종로를 지나 서울 시내 전역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모두 나서 평화적 만세 시위를 펼쳤던 3.1 운동을 일제는 총칼을 앞세워 막으려 했지요.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독립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갖게 했어요. 그 결실로

윌슨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국제연맹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1919년에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여 많은 약소국에 희망을 줌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공원으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유명함

태화관

일제강점기에 경성부에 있던 음식점으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역사적 장소

같은 해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했지요. 이 때문에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근거지인 상하이를 떠나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곳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려 나갔고,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광복을 이끌었지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에 맞춰 정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독립운동에 힘쓴 유공자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자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1

1.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은 3.1 독립 선언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립을 선언했어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쿄 조선 유학생 학우회는 1919년 1월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열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뒤 '독립 선언서'를 작성했지요. 그리고 2월 8일 선언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관 및 일본 정부, 일본 국회 등에 보낸 다음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어 독립선언식을 열었어요. 당시 일제가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27명의 유학생이 체포되었답니다.

2. 민족 대표 33인

1919년 3.1 운동 때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가리키는 말로, 천도교(15명), 기독교(16명), 불교(2명) 등 각 종교계 지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3. 중국 상하이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상하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이며, 중국의 주요 산업·상업의 중심지예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질 당시 상하이에는 일제의 영향력이 덜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사관**이 있어 외교 활동을 펼치기에 편리한 곳이에요. 이런 이유로 1919년 4월 13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상하이에 세우게 되었답니다.

기미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한 문서로, 3.1 독립선언서라고도 함

공사관

외무 공무원의 하나인 공사가 일정한 임무를 띠고,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맡은 일을 보는 기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끈 독립운동가들의 모습

기념일 속 이야기 2

탐방과 체험의 현장

1. 서대문형무소의 미루나무 이야기

서대문형무소의 옥사에서 나와 사형장을 향해 걷다 보면 커다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화 02)360-8590~1 **홈페이지** http://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asp

미루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이 나무는 일제강점기 당시 형무소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이 사형당하기 전 독립을 이루지 못한 애통함에 이 미루나무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하여 '통곡의 미루나무'라 불리게 되었지요. 또 같은 날 사형장 안쪽에 심어진 미루나무는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많이 서린 탓에 잘 자라지 못했다고 전해진답니다.

2.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진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부터 민족의식이 강했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1916년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면제받는 대신 졸업 후에 본교의 교사가 되기로 약속한 학생)으로 입학하여 1919년 우수한 성적으로 보통과를 마친 후 이화학당 고등부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갔어요.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사람들이 학교 앞

을 지나가자 동료 학생들과 함께 담장을 뛰어넘어 시위에 동참했답니다.

이후 사촌 언니(유예도)와 함께 독립 선언서를 숨겨 천안에 내려간 유관순 열사는 교회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세운동에 관해 설명하고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어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낸 유관순 열사는 마침내 4월 1일에 아우내 장터에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나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들이 총칼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막았지요. 그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 등 1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어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었지요. 당시 유관순 열사는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일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혹독한 고초를 겪었답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하며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 시달렸던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끝까지 대한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일제에 맞섰던 유관순 열사는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한 3.1 운동의 상징으로 남았답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908년 10월 21일 일제가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서대문형무소는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한국의 국권을 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민족 수난의 현장이에요. 당시 이곳에는 특수고문실 등이 있는 감방과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한 사형장과 일반 사무실, 교회당, 공장, 창고, 취사장, 식당, 세면장, 감시탑과 운동장 등의 시설이 있었어요.

광복 이후에는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87년 의왕시로 이전되었다가 과거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자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재단장하여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주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전화 02)360-8590

개방 시간 09:30~18:00(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관)

* 월요일 휴무(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홈페이지 http://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asp

1.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다 체포된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① 김좌진 ② 홍범도 ③ 안중근 ④ 유관순

2.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① 4월 13일 ② 5월 5일 ③ 8월 15일 ④ 11월 13일

3. 3.1 운동 당시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는 모두 몇 명일까요?

① 31명 ② 32명 ③ 33명 ④ 34명

4. 1908년 조선통감부가 의병 등 반일 세력을 탄압하고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감옥으로, 일제강점기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가 옥고를 치른 곳은 어디일까요?

① 동양척식주식회사 ② 조선총독부 ③ 종로경찰서 ④ 서대문형무소

정답: 1. 유관순 2. 4월 13일 3. 33명 4. 서대문형무소

2장 광복절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

이에 우리 애국지사들은 3.1 운동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소련),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

1941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의 광복군은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 선전 포고를 하노라!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연합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돕기로 약속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 한국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나도 동의하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다.
퍼
엉

일본이 항복하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절의 의미 바로 알기!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

광복이란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함.

1. 광복절은 무엇인가요?

광복절은 말 그대로 빛(光)을 되찾은(復) 날이에요. 즉,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날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어요. 이후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독하게 통치했지요. 이에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평화로운 만세운동으로 전 세계에 독립 의지를 알렸어요. 하지만 일제는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못하게 했어요.

국권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으로 주권 및 통치권 등을 의미

하지만 우리 민족은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애국지사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년 4월 13일)를 수립하고 만주 일대에서 일제와 전쟁을 벌였어요. 국내에선 수많은 독립투사가 일본 경찰과 싸웠고, 일제와 손잡은 친일파를 처단하기도 했어요.

1932년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지금의 루쉰 공원)에서 일본군 총사령관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며,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요.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젊은 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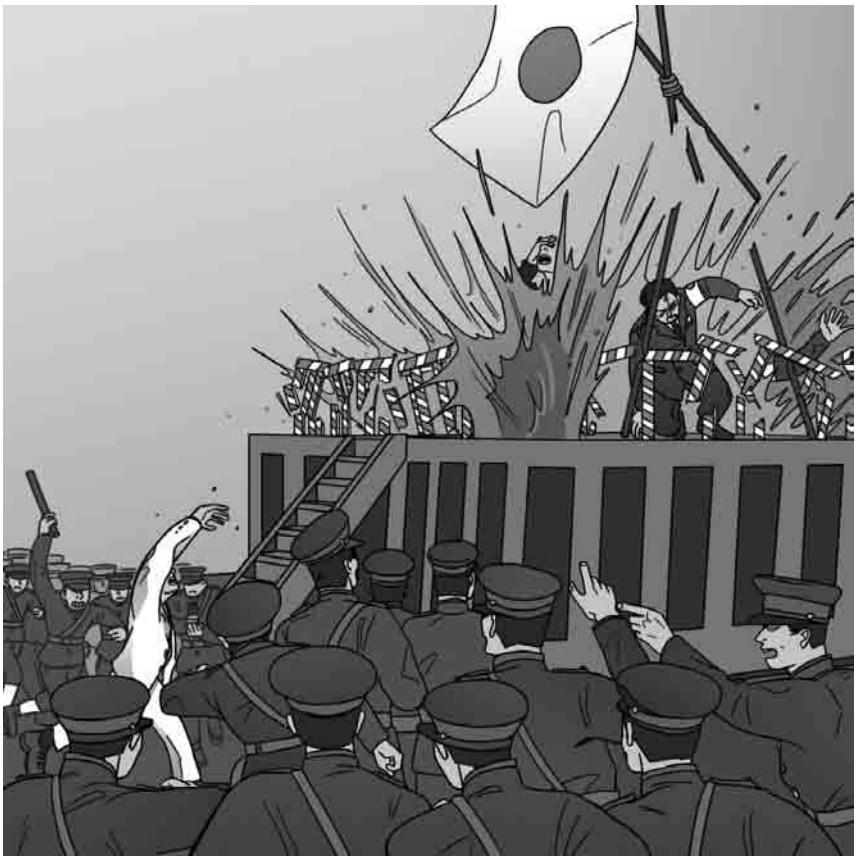
또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1년 12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연합군의 일

선전 포고
다른 나라에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진공
나아가 공격함

원이 되어 독일과 일본에 **선전 포고**했어요. 한국 광복군은 1943년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기도 했지요.

일제의 패망이 다가오자 한국 광복군은 미군에게 군사훈련을 받아 한반도에 **진공**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어요. 일제가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에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35년간 국내 · 외에서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을 벌였던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연합국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약속 받지 못했을 거예요.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전폭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쟁이 끝난 뒤 일본 처리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을 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은 중국의 장제스(장개석)를 만나 자주 독립의 의지를 보였지요.

2. 우리나라는 어떻게 독립하게 되었나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본 왕 히로히토의 힘없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국민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대체 히로히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가 미국 · 영국 · 중국의 공동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했어요. 히로히토의 이 말을 알아들은 몇몇 사람들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역시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지요.

우리 민족이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위해 기울인 끊임없는 노력과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 · 영국 · 중국의 **수뇌부**들은 이집트의 수

수뇌부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도 카이로에서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앞으로 일제가 패망할 경우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도 의논했지요.

일제의 **패망**이 현실로 다가온 1945년 7월 26일에는 미국 · 영국 · 중국의 수뇌부가 독일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어요.

패망
싸움에 져서 망함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로 들어설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자 그제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지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일본은 연합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에 미국은 더 이상의 경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의 경고를 받아들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 수많은 일본인이 죽었지만, 이 가운데 약 10%는 우리나라 사람이었답니다.

3. 1945년 8월 15일, 서울이 조용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사실 우리가 보는 광복절 사진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와 온 거리를 뒤덮은 사진들은 모두 8월 16일 날 찍힌 거예요. 정작 해방된 8월 15일 서울은 조용했어요. 일본 왕 히로히토가 항복을 발표한 날이었는데, 왜 조용했냐고요? 그건 바로 라디

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복한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지 못했고, 또 히로히토의 말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념일 속 이야기

한국 광복군 진공 작전

1945년 5월, 한국 광복군은 중국 시안에 위치한 OSS훈련장에서 한반도 진공 작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며 훈련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뒤 항공기나 잠수함으로 한반도에 침투하여 첩보활동과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여 일제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임무였지요. 하지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한반도 진공 작전이 아쉽게 무산되었답니다.

한국 광복군 대원들의 모습

8월 15일과 16일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몽양 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가예요.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만나자는 요청으로 여운형 선생이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선생을 보며 말했어요.

"지난 날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이 합한 것이 조선 민중에 합당하였는가 아닌가는 말할 수 없고, 오늘날 나누는 때에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또 오해로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중을 잘 지도하여 달라."

이 요청에 선생은 히로히토가 이날 12시에 라디오 연설 때 연합국 수뇌부들의 경고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사실 또한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며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첫째, 전 조선에 있는 정치 경제범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서울의 8 · 9 · 10월의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넘겨 달라.
셋째,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에 당신들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넷째,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에 간섭하지 마라.
다섯째,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간섭하지 마라.

"내가 말한 조건들을 들어준다면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알겠소, 몽양 선생. 내 그리 하리다."

8월 16일이 되자 약속했던 정치 · 경제 사범들이 풀려났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야 해방됐음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났는지 태극기를 꺼내들고는 거리로 몰려나갔어요. 일부는 태극기를 그리지 못해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에 태극과 괘를 그려 넣고는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지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많은 사람이 몽양 선생에게 연설을 부탁했고, 선생은 휘문고등학교에서 해방된 조선에 대해 연설했어요. 사람들은 몽양 선생의 연설을 듣고 비로소 해방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몽양 선생은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1947년 7월 19일 돌아가셨답니다.

광복을 환호하는 모습
출처: 국가보훈처

함께 배워요

광복절은 일본에게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은 날이에요. 길고 긴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빛을 되찾으며 맞은 광복절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국경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광복절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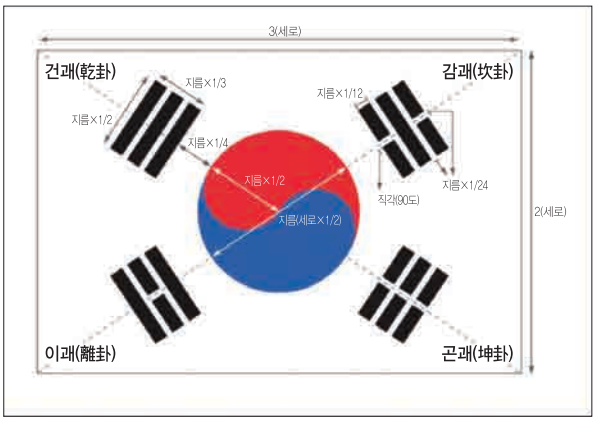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고대하던 독립을 맞아 드높이 휘날린 것이 태극기였지요. 광복의 그 날을 되새기며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극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중앙에 도안되어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 상에는 건(乾) · 곤(坤) · 이(離) · 감(坎)의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태극은 우주 생성 원리를 상징해요. 태극의 빨간색은 존귀와 양(陽)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陰)을 의미하는 우주관을 담고 있어요. 사괘의 건은 하늘을, 곤은 땅을, 이는 불을, 감은 물을 의미한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아요.



기념일 속 명소 탐방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1987년 국민모금운동으로 건립한 곳으로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해 놓은 곳이다. 4D 영화 상영관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야외 전시장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독립기념관
출처: 독립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 이곳은 효창공원에 있는 근현대사 역사박물관이다.
1층에는 백범의 유년시절부터 일제에 저항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과정이, 2층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 광복군에서의 시기별 활동, 그리고 광복을 맞이할 때부터 서거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진과 기록물 위주로 전시돼 있다.

백범 김구 박물관
출처: 서울 박물관 · 미술관

1. 1940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군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독립군　② 임시 정부 군대　③ 한국 광복군　④ 국군

2.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　) 안에 자유롭게 써넣으세요.

나에게 있어 광복절은 (　　) 날입니다.

정답: 1. 한국 광복군

3장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일제에 피탈 당한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얼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은 광복 후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으나,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사실 11월 17일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던 을사늑약(1905년)이 체결된 날이에요. 당시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11월 17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이날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긴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요. 동시에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순국하신 많은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랍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일 속 이야기 1

1. 순국선열

순국선열은 일제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말해요. 1909년 10월 26일 우리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안중근 의사,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혹독하게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 등이 대표적인 순국선열이랍니다.

원흉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

옥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겪는 괴로움

법률상 의미에서의 순국선열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서는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 피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피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 때문에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를 말함.

2. 애국지사

일제에 맞서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 한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광복(1945.8.15)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순국선열로, 살아서 광복을 맞이한 분들은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가령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신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순국선열에 해당하고, 광복 이후까지 살아 계신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애국지사가 된답니다.

3. 을사늑약

1905년에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3.1 운동 이후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모여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헌법도 마련했지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우리 민족의 자주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2

위대한 어머니와 불의에 맞선 아들

조마리아 여사와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안중근 의사
출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어 뤼순 옥중에서 두 동생 정근, 공근 및 빌렘 신부와 함께 마지막 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체포되어 사형을 앞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면회를 가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네가 만약 늙은 에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에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항소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들이 신념과 뜻을 꺾지 않기를 당부했지요. 어머니의 뜻을 전해 들은 아들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 문안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주시니

훗날 영원히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뜻을 꺾지 않겠다는 안중근 의사의 굳건한 신념과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 묻어나는 편지예요. 그 어머니에 그 아들답고요.

사형 집행일인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31세의 나이로 순국한 안중근 의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후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내부 전시장
출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기념일 속 명소 탐방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건립하기 시작하여 1987년 8월 15일에 문을 열었어요. 이름에 걸맞게 독립기념관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지요.

특히,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시련을 살펴볼 수 있는 제2전시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대표되는 구한말의 국권회복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제3전시관,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는 제4전시관, 일제와 무장투쟁을 펼친 독립군과 일제의 침략기관 및 주요 인물을 처단한 의열투쟁의 역사를 전시한 제5전시관을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대대적인 활성화 사업을 펼쳐 모든 전시관을 최첨단의 생동감 넘치는 전시물들로 교체되었어요. 전시물 못지않게 아름다운 숲과 자연도 아울러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답니다.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지번)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1

개방 시간 09:30~17:00(3~10월), 09:30~16:00(11~2월) * 월요일 휴무(공휴일인 경우 개관)

관람료 무료

전화 041)560-0114

홈페이지 http://www.i815.or.kr

1. '순국선열의 날'은 언제일까요?

① 3월 1일 ② 5월 5일 ③ 6월 6일 ④ 11월 17일

2.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은 무엇인가요?

① 강화도 조약 ② 정미7조약 ③ 을사늑약 ④ 제물포 조약

3. 1919년 3.1 운동 이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된 기관은 어디인가요?

① 한인 애국단 ② 독립협회 ③ 중추원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

4.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하얼빈역 ② 서울역 ③ 로스앤젤레스 ④ 상하이

정답: 1. 11월 17일 2. 을사늑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 4. 하얼빈역

4장 현충일 6월 6일

아빠, 아빠.
전화 왔어요.
마, 맞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유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찾고 싶으셨던
할아버지 유해를요.
글썽-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현충일의 의미 바로 알기!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
1956년 4월 법정 기념일로 지정.

고려사

1449년(세종 31)에 편찬하기 시작해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된 고려시대 역사서

현종

고려 제8대 국왕

청명과 한식

청명 24절기의 다섯 번째 날로,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하는 시기

한식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날

현충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현충일은 왜 6월 6일로 정해졌나요?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우선 6.25 전쟁이 6월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고려사**라는 책에 의하면 고려 **현종** 5년 6월에 왕은 국경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중하게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해요.

또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청명**과 **한식**에 벌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엔 제사를 지냈어요. 망종은 24절기 중에서 9번째로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에요. 보리를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가을에 풍년이 들게 해주기를 바라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지요. 1956년 현충 기념일을 6월 6일로 정할 당시 망종이 6월 6일이었고 자연스럽게 6월 6일이 현충 기념일이 되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현충일이 된 것은 1975년 12월부터랍니다.

2. 현충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기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

우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태극기를 달아요. 태극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기**를 달아요. 가정에서는 보통 밖에서 보는 기준으로 대문(혹은 난간)의 가운데나 왼쪽에 달지요. 태극기를 달 때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해요. 오전 10시에는 전

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려요. 이때 우리 어린이들은 1분간 묵념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또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거나 현충탑, 충혼탑 등에 가서 **추념**하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서울 동작동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있으며, 대전에도 국립대전현충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장에 있는 충혼탑 등에서도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된답니다.

추념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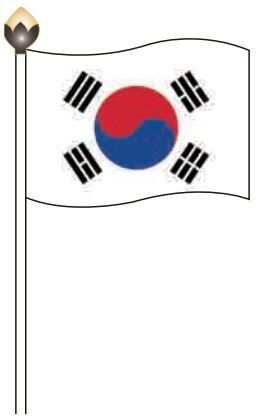
함께 배워요

현충일 노래 (조지훈 작사 임원식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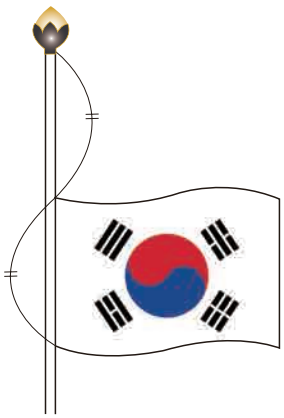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 날이 갈수록 아아 그 충성 새로워라
[현충일 노래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GVtfM6-Drzl

국기 다는 법

경축일과 평일



현충일, 국가장 기간일 때



- **국기 게양 시간**
  오전 7시 ~ 오후 6시
  관공서, 공공기관:
  오전 07시 ~ 오후 24시

호국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킴

보훈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함

3. 6월은 왜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 현충일과 6월 15일 제1연평해전, 6월 25일에는 6.25 전쟁과 6월 29일에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에요.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싸운 달이 6월이기에, 이를 기리고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 부르고 있지요.

[호국보훈의 달]

6월 01일 ~ 6월 10일	**추모 기간**
6월 11일 ~ 6월 20일	**감사 기간**
6월 21일 ~ 6월 3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

현충일과 관련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1950년 6월, 진태는 어머니와 동생 진석, 그리고 약혼녀 영신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진태의 가족은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대구역 근처에서 동생 진석이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군용열차에 오르게 되고, 진석을 찾아오기 위해 열차에 오른 진태 또한 군용열차에 실려 가게 된답니다. 형제가 함께 전쟁터에 보내지자, 형 진태는 동생을 군대에서 내보내기 위해 진석은 대대장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진태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야 동생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앞에 나서게 되고, 오직 동생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형을 이해할 수 없는 동생 진석은 점차 형과 갈등하게 됩니다.
동생인 진석이 국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오해한 진태는 이번에는 북한군 부대장이 되고 맙니다. 이후 진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형인 진태가 북한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나가 형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태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고, 50여 년이 지난 뒤에 유골 발굴 작업 현장에서 유골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이와 같은 민족의 상처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을 지나면 정면에 현충탑이 보이는데, 이곳엔 무명용사 11만 명의 위패를 모신 납골당과 위패실이 있습니다. 현충탑을 중심으로 양쪽엔 약 6만여 위의 호국 영령들이 영원한 안식을 하고 있는 묘역이 있습니다.

주요 행사

월별	행사 내용
4월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원 행사, 군악 의장 행사
5월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군악 의장 행사
6월	현충일 행사, 군악 의장 행사
8월	광복절 기념 행사, 무궁화 축제
9월	현충원 의장대 근무교대식
10월	가을 단풍제, 군악 의장 행사

주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개방 시간
통문 3월–11월 06시~18시
12월–2월 07시~17시
정문 06시~18시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www.snmb.mil.kr

국립대전현충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갑동 산 23–1)
개방 시간 3~10월(06:00~18:00), 11~2월(07:00~18:00)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www.dnc.go.kr

전쟁기념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
(용산동1가 8번지)
개방 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전화 02-709-3114, 3139
홈페이지 https://www.warmemo.or.kr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개방 시간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관람료 유료
전화 054-979-5502
홈페이지 http://chppm.chilgok.go.kr

다부동전적기념관

주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개방 시간 09:00~18:00
(휴관일: 설/추석 명절)
관람료 무료
전화 054-973-6313
홈페이지 http://www.dabu.or.kr/dabu/

1. 6월 6일 현충일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다음 ( ) 안에 적합한 단어를 넣어 보세요.

현충일에는 ( )를 달고, 오전 10시부터 1분간 ( )이 울리면 ( )을 합니다.

2. 6월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제1연평해전 ② 천안함 피격 ③ 제2연평해전 ④ 6.25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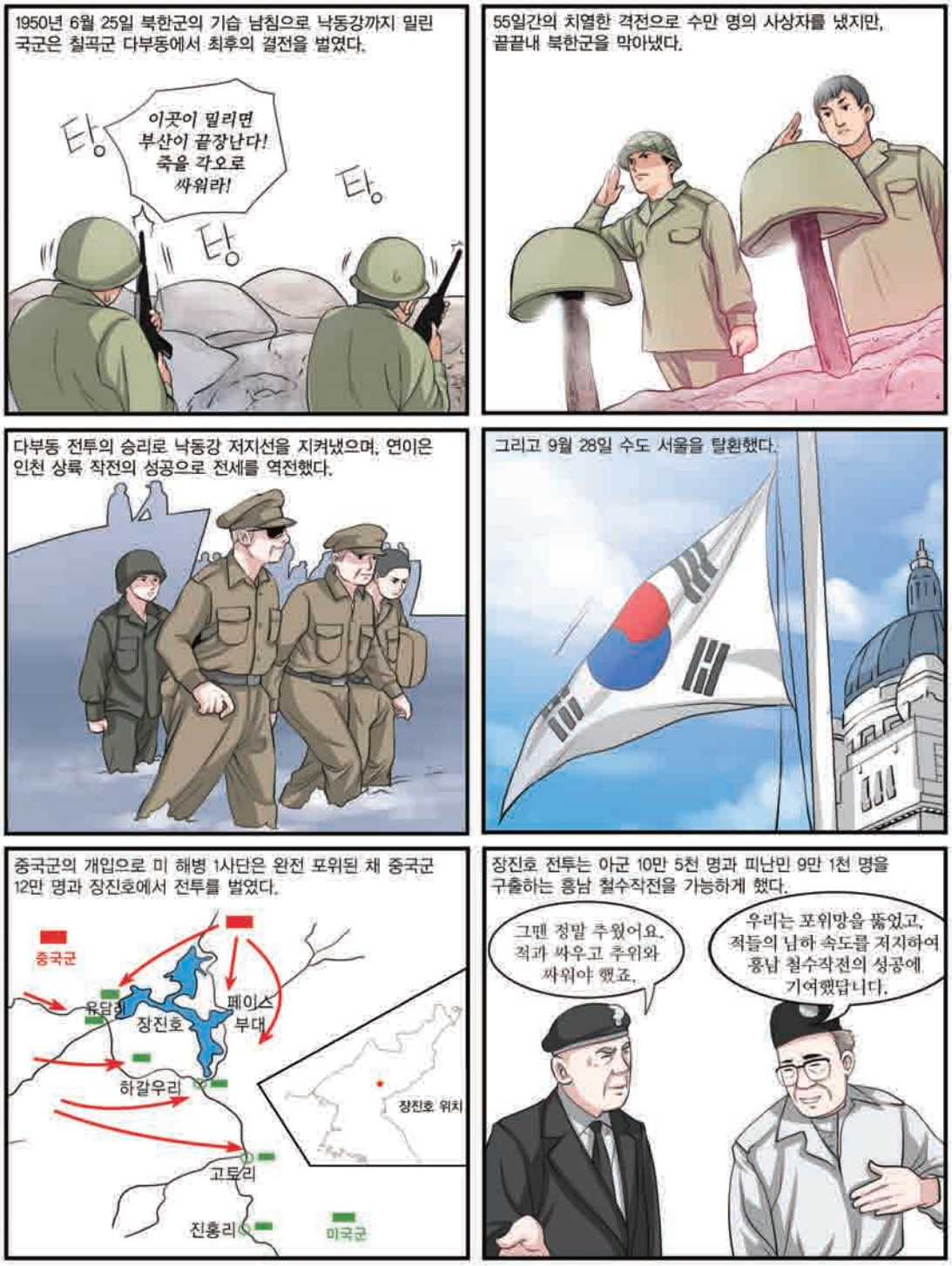
3.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 ) 안에 넣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현충일은 어떤 의미였나요? 단순히 하루 쉬는, 학교에 안 가도 되는 공휴일로 생각했는지 반성해봅니다.

나에게 있어 현충일은 ( ) 날입니다.

정답: 1. 조기, 사이렌, 묵념 2. 천안함 피격

5장 ❶ 6.25 전쟁 6월 25일



6.25 전쟁(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훈에 감사드리며, 전 국민이 안보 의지를 다지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정한 기념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무려 1,129일(3년 1개월)간 계속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멈췄어요. 6.25 전쟁 과정에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라는 큰 뜻을 위해 나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군(국제연합군)이 결성되고, 우리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지요.

6.25 전쟁에 전 세계 21개국에서 총 195만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참전했어요. 이 가운데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참전국 중 미군은 179만 명이 참전하여 유엔군의 90% 이상을 차지했어요.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우방**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국난 극복의 역사가 됐답니다.

특히, 6.25 전쟁 기간 중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3대 전투가 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빼앗긴 우리의 국토를 다시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준 다부동 전투, 희박한 성공 확률을 뒤엎고 완벽한 성공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은 물론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 작전, 흥남 철수작전의 원동력이 된 장진호 전투가 바로 3대 그것이랍니다.

정전협정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의 합의에 따라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맺는 약속.

* 6.25 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맺음.

우방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뜻함.

기념일 속 이야기 1

1. 다부동 전투(1950. 8. 1. ~ 1950. 9. 24.)

1950년 8월부터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국제연합군)이 북한군과 벌인 전투로, 6.25 전쟁 중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손꼽혀요. 당시 패전을 거듭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으로서는 다부동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구와 부산까지 적에게 내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지요. 55일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아군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다부동을 지켜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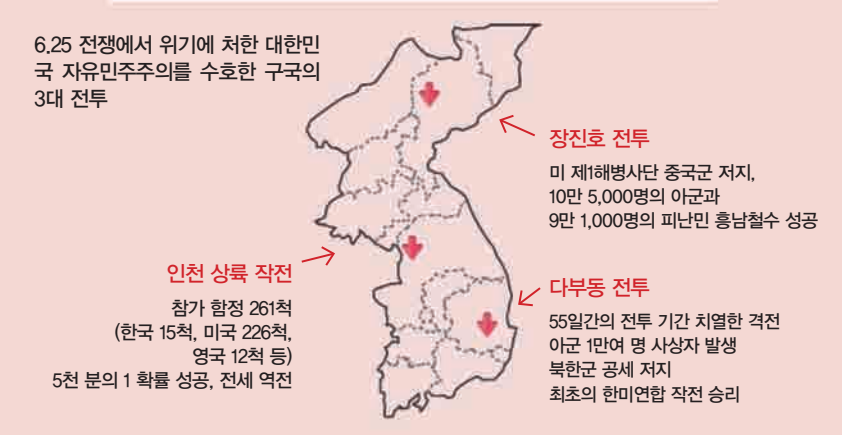
2.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

인천 상륙 작전은 전쟁사에 빛나는 위대한 작전으로 유명해요. 사실상 인천은 워낙 물살이 빠른 데다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상륙 작전을 펼치기에는 적당치 않은 곳이었어요. 당시 작전 성공 확률이 5천 분의 1로 여겨졌을 정도였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주위의 반대와 우려를 물리치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어요. 당시 동원된 배는 261척, 군 병력 7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작전이었이요.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은 서울 탈환으로 이어져 아군에게 불리했던 전쟁 상황을 뒤집는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3. 장진호 전투(1950. 11. 27. ~ 1950. 12. 11.)

장진호 전투는 인천 상륙 작전에서 주력 부대로 활약했던 미 제1해병사단 1만 8천 명이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중국군 12만 명과 싸운 전투예요. 당시 미군은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중국군과 맞서 싸웠어요. 미군을 괴롭힌 건 중국군만이 아니었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에 동상에 걸리는 병사가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미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국군과 싸워 마침내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했지요.

장진호 전투는 중국군의 남하 속도를 저지하여 10만 5,000명의 아군과 9만 1,000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 흥남철수작전의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2

인천 상륙 작전의 숨은 영웅 로페즈 중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보병 장교로 한국 파병에 지원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는 미 해병 제1사단 5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전쟁에 참가했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된 그는 연안에 상륙한 뒤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었지요. 가장 먼저 방어벽을 넘는 그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 현재까지도 인천 상륙 작전의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방호벽을 넘은 뒤 북한군 벙커에 수류탄을 던지려던 로페즈 중위는 적이 쏜 총탄에 맞아 핀을 뽑은 수류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대로 수류탄을 놔뒀다간 부대원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친 몸으로 기다시피 하여 수류탄을 그대로 끌어안고 산화했지요. 기념비적인 사진을 촬영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종군 기자 제리소프는 기사를 통해 "용기 있는 죽음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을 남기며 로페즈 중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답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다부동 전적기념관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치열하게 맞선 다부동 전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념관이에요. 당시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실제로 사용한 각종 무기류, 배낭과 물통 등 각종 장비가 전시되어 있어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호국 영웅을 기리는 다부동 전투 구국 용사 충혼비 등을 만날 수 있답니다.

다부동 전적 기념관 전경
출처: 칠곡군

주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전화 054)973-6313
홈페이지 http://www.dabu.or.kr

1. 다음 중 6.25 전쟁 구국의 3대 전투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① 다부동 전투 ② 인천 상륙 작전 ③ 장진호 전투 ④ 부산 상륙 작전

2.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은 누구인가요?

① 워싱턴 ② 맥아더 ③ 워커 ④ 권율

3. 흥남 철수작전이 성공하는 데 가장 기여한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① 다부동 전투 ② 낙동강 전투 ③ 장진호 전투 ④ 백마고지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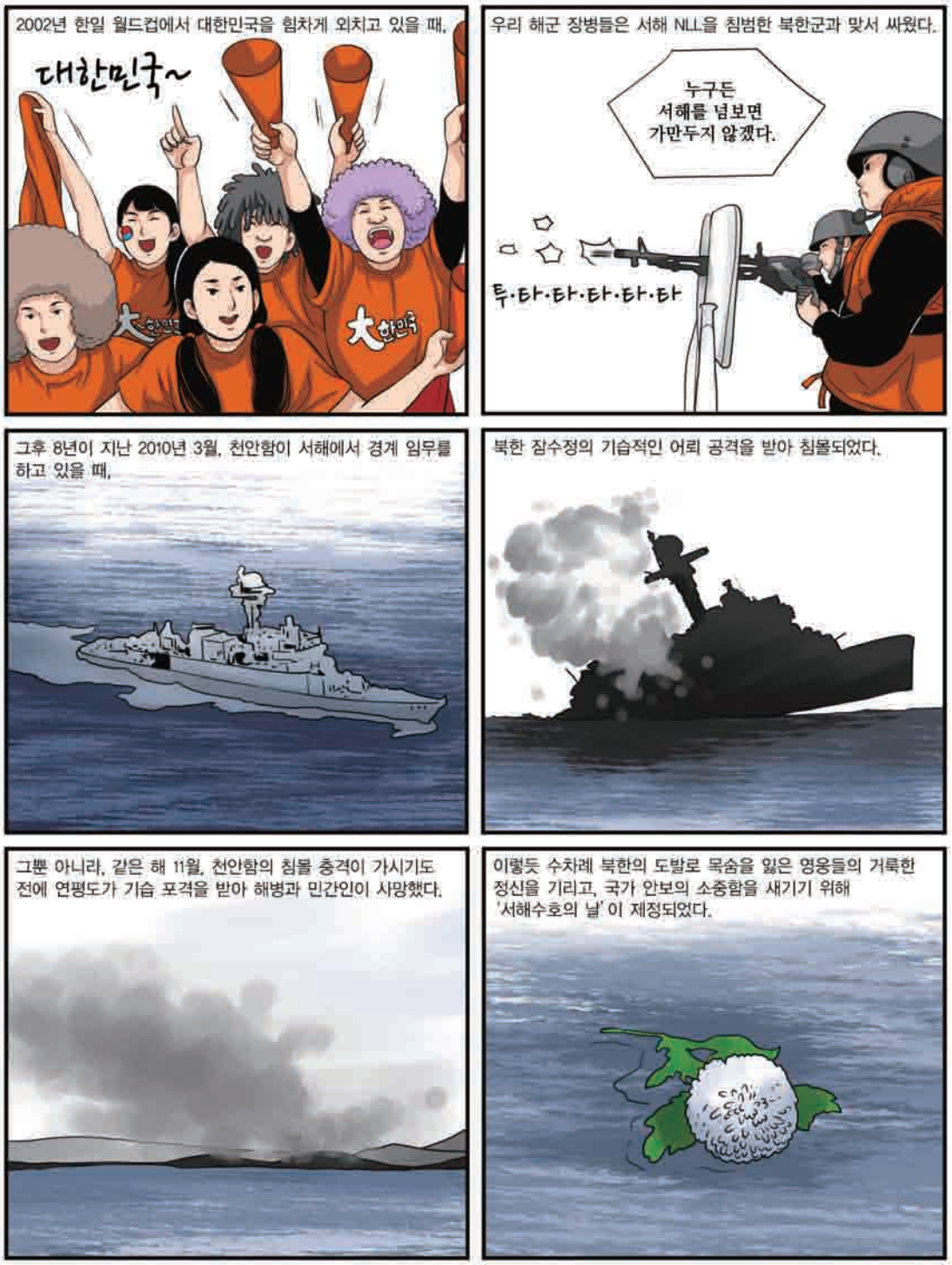
4. 장진호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딛고 중국군과 전투를 벌인 주력 부대는 어느 나라의 부대입니까?

① 미국 ② 에티오피아 ③ 대한민국 ④ 캐나다

정답: 1. 부산 상륙 작전 2. 맥아더 3. 장진호 전투 4. 미국

5장 ②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됨.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제1연평해전 이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에 맞서 우리의 서해를 지키며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에요.

또한, 서해수호의 날에는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하는 북한의 도발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새겨 보자는 뜻도 함께 담겨 있어요.

서해수호의 날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서해를 지키던 우리 해군 용사 46명이 전사함으로써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일(3월 26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했기 때문이랍니다.

NLL

휴전 이후 서해에 그어진 해상 경계선

기념일 속 이야기 1

1. 제2연평해전

온 국민이 한일 월드컵의 함성으로 들떠있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서해 NLL(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해양 경계선)을 침범하여 우리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을 공격했어요. 우리 해군은 함교,

경비정

바다나 하천의 연안을 살피고 지키는 작고 빠른 함정

조타실 등이 피격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조국과 바다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전투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북한 경비정을 격퇴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총상을 입어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싸웠던 그들은 제2연평해전의 영웅이지요. 또한,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 해군은 조국의 바다를 수호할 유도탄 고속함(PKG · 400t급) 6척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 용사 여섯 명의 이름을 각각 붙였답니다.

2.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천안함은 1,200톤급 군함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해상을 경계하는 군함이었어요. 그러나 기습적인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은 침몰되고 말았어요. 구조에 나선 우리 군은 생존자 58명을 즉시 구조했지만, 서해 최전선을 지키던 46명의 우리 용사는 전사했고요. '천안함 피격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6.25 전쟁 이후 북한 도발에 의해 우리 군의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되었답니다.

잠수정
바닷속에 들어가 우리의 영해를 살피는 배.

3.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천안함 피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같은 해 11월 23일 오후 2시, 북한은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일으켰어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서해 연평도는 맨눈으로도 북한 땅이 보일 만큼 북한과 아주 가까운 섬이에요.

평화롭던 연평도는 북한이 쏜 포탄으로 불바다가 되었지요.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아무런 대비가 없는 민간인이 사는 곳을 포격함으로써 우리의 해병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수십 채의 건물과 나무가 불탔지요. 우리 군도 북한군에 맞서 대응 사격을 하여 북한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2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친 박동혁 병장

2002년 6월 29일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의 해군 6명이 전사했어요. 대부분의 전사자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당일에 목숨을 잃었지만, 한 병사는 상처를 입고 병상에 있다가 9월 20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박동혁 병장이에요.

박동혁 병장은 부상자를 돌보는 의무병이었어요. 국제법상 의무병은 공격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오히려 의무병이 더 위험해요. 부상당한 전우를 돌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그만큼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당시 적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한 전우들을 보살피던 박동혁 병장 역시 적탄에 맞았지만, 그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부상병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온몸에 박힌 수십 개의 파편은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배 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을 돌봤다는 사실이지요.

박동혁 병장은 84일간의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낸 가슴 아픈 기억을 편지글로 남겼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최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한 박동혁 병장의 흉상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오늘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네가 너무나 아파했기에 쓰리고 저미어 오는 가슴 가눌 길이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 뜨고는 볼 수 없었고. 성한 데라고는 머리하고 왼손뿐이었어.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 하는 아들. 안쓰럽고 불쌍하고 처참했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왼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흐느낀다.

주렁주렁 매달린 약병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은 상처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다.

엄청난 상처를 뒤로 한 채 9월 20일 새벽,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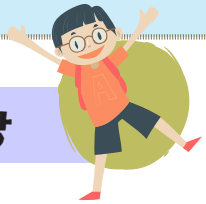
동혁아, 세상에 태어나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버렸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오늘도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해가 저문다.

총소리, 전쟁 없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자.”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 씀



기념일 속 명소 탐방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은 천안함 피격, 제1, 2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던 참수리 357호정,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당한 천안함 등 북한의 서해 도발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품과 전투 당시 전사한 용사들의 유품까지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은 견학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답니다.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절단된 천안함
출처: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 전시물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던 참수리 357호
출처: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 전시물

참수리 357호
제2연평해전 당시 오직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싸웠던 우리의 용사들과 함께 조국의 바다를 수호했던 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

견학 신청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 견학 지원 담당 031-685-4123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에 접속하여 '견학/면회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휴관일 매주 일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인근 군부대 안에 안보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정확한 주소가 공개되지 않음.

1. '서해수호의 날'은 3월 넷째 무슨 요일일까요?

① 수요일 ② 목요일 ③ 금요일 ④ 토요일

2.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섬으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격을 받은 섬은 어디일까요?

① 제주도 ② 백령도 ③ 흑산도 ④ 연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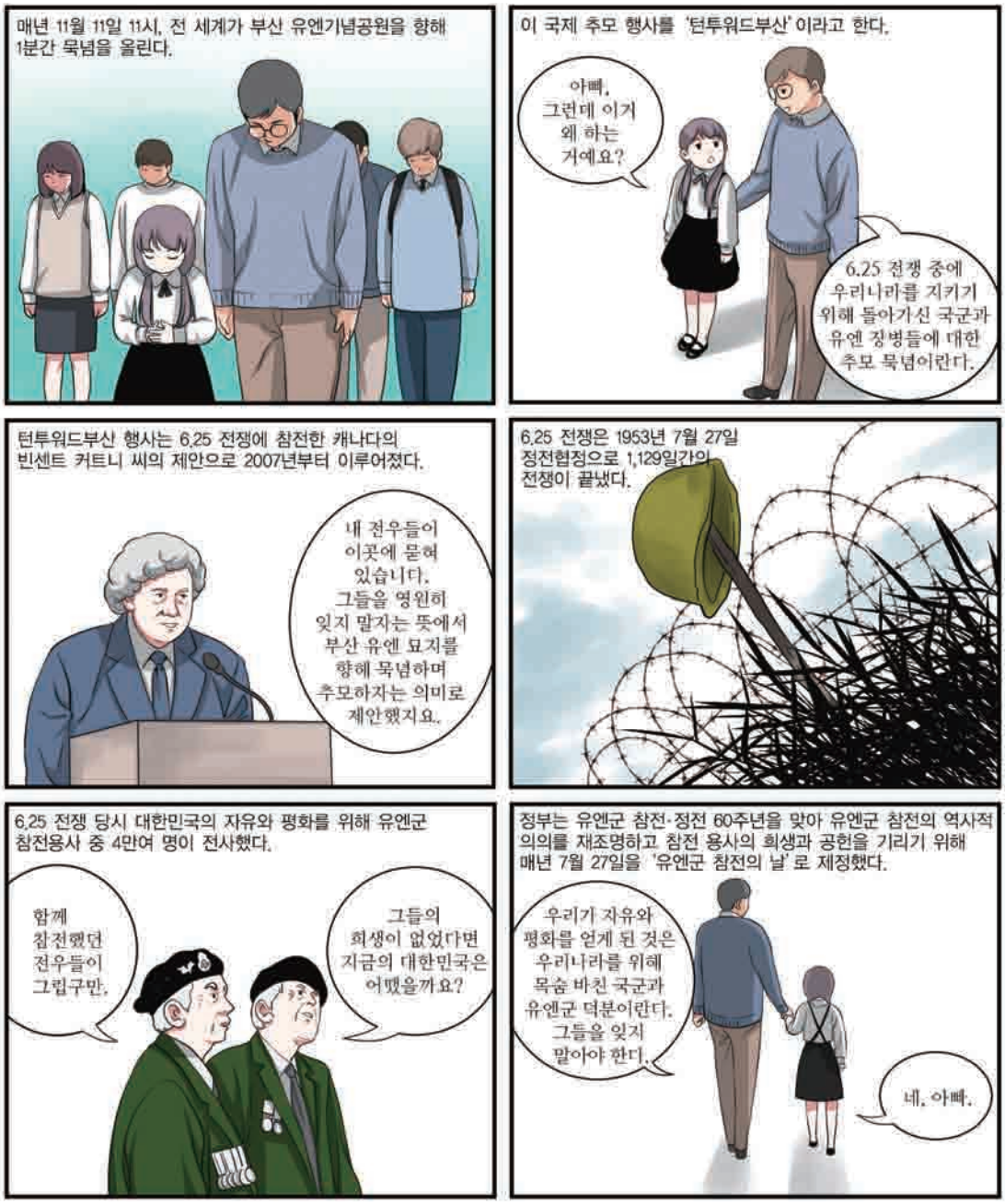
3.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을 무엇이라 할까요?

① 서해 NLL ② 서해 PLL ③ 서해 OOL ④ 서해 NNL

정답: 1. 금요일 2. 연평도 3. 서해 NLL

6장 ❶ 턴투워드부산 11월 11일

❷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7월 27일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11월 11일)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1월 11일 11시에 전 세계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을 올리는 국제 추모 행사.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보훈기념일.

턴투워드부산 추모 행사 참여 방법

11월 11일 오전 11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산을 향해 1분간 추모 묵념을 올림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맞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참전 21개국이 참여하는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은 6.25 전쟁 중에 전사한 유엔 **전몰장병**들이 묻힌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추모 묵념을 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국제 추모 행사예요.

전몰장병

전쟁터에서 싸우다 희생된 장군과 병사를 가리키는 말

이 행사는 6.25 전쟁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Vincent R. Courtenay)'의 제안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7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2007년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2015년 이후 대한민국과 참전 21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적인 추모 행사로 확대되었어요.

'턴투워드부산'은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국군과 유엔 전몰장병들의 거룩한 공헌을 기리는 것은 물론, 참전 21개국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적인 추모 행사인 동시에 뜻깊은 보훈 기념일이랍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이에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우리 국민은

6.25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전협정 이후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하여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냈답니다.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 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의미 있는 보훈 기념일이에요. 또한,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체결된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되었지요.

정전협정 60년의 해인 2013년에 제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켜준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과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통해 미래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날이기도 해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답니다.

● 기념일 속 이야기 1

1. 6.25 전쟁(1950. 6. 25.~1953. 7. 27.)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1,129일(3년 1개월)간 계속되었어요. 광복을 맞은 지 5년 만에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을 남겼지요.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비극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2. 유엔(UN/United Nations/국제 연합)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5년 10월 24일에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예요.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인 국제기관으로, 국제 연합이라고

도 부르지요.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한국 시각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북한과 함께 동시에 가입했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터키

6.25 전쟁 당시 2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함. 그래서 터키는 우리나라를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고 부름

3. 유엔군(국제 연합군) 참전

유엔군(국제 연합군)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회원국들의 병력으로 편성한 군대를 말해요. 6.25 전쟁 당시 세계 21개국에서 195만여 명이 참전하였는데, 이 중 전투 지원이 16개국(미국·영국·캐나다·터키·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태국·네덜란드·콜롬비아·그리스·뉴질랜드·에티오피아·벨기에·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룩셈부르크), 의료 지원은 5개국(인도·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이었어요. 이외에도 물자 지원국 39개국, 물자 지원 의사 표명국 3개국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는 모두 63개국에 이른답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라는 큰 뜻을 위해 이름도 몰랐던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군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어요. 이 가운데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지요. 그중에서도 참전 병력 90% 이상을 지원했던 미군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도 지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북한의 전쟁 도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4. 11월 11일

'턴투워드부산'이 열리는 11월 11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

이에요.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자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고, 미국에서는 참전(제대)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추모 감사하는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기도 하지요.

기념일 속 이야기 2

죽어서야 만날 수 있었던 남편과 아내

2015년 5월 2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호국의 다리에서 65년 만의 '사후 재회(죽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것)'가 이루어졌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6.25 전쟁 중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미국 참전용사 제임스 엘리엇 중위와 그의 아내 알딘 엘리엇 블랙스톤이에요. 제임스 엘리엇 중위는 29세 때 부인과 어린 자녀를 두고 1950년 6.25 전쟁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8월 27일 낙동강 전투 당시 야간 경계근무를 나간 뒤 실종되었어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실종된 미국 참전용사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딸 조르자 레이번과 아들 제임스 L 엘리엇이 칠곡군 호국의 다리에서 어머니의 유골분을 낙동강에 뿌리고 있다.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던 알딘 엘리엇 블랙스톤이 세상을 떠나자 자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낙동강에 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요.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떠났던 아버지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에 의해 극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유엔기념공원

1951년에 만들어진 유엔기념공원은 부산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소 중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엔군(국제 연합군)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2,300여 명의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지요. 또한, 6.25 전쟁 참전국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기념관에는 당시 유엔군의 활약상을 짐작할 수 있는 기념품과 사진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어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주소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93 (남구 대연4동 779-1)

전화 051)625-0625

개방 시간 09:00~17:00(10~4월), 09:00~18:00(5~9월)

홈페이지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www.unmck.or.kr

※ 연중무휴 365일 개방

1.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추모식이 열리는 날은 언제일까요?

① 1월 1일 ② 7월 7일 ③ 9월 9일 ④ 11월 11일

2.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부산을 위하여 ② 부산을 향하여 ③ 부산을 통하여 ④ 부산을 정하여

3. 6.25 전쟁 당시 유엔군(국제 연합군)으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전투 지원과 의료 지원에 참여한 국가 수는 얼마나 될까요?

① 10개국 ② 15개국 ③ 20개국 ④ 21개국

4.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① 정전협정 ② 한미상호방위조약 ③ 한미무역협정 ④ 한일협정

정답: 1. 11월 11일 2. 부산을 향하여 3. 21개국 4. 한미상호방위조약

7장 3.15 의거 3월 15일

3.15 의거 기념일 바로 알기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날로,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정함.

1.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왜 부정 선거를 하려고 했나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됐어요. 이를 기념하는 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이후 1948년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상태에서 1952년 치뤄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다시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직을 거듭해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두 번 당선되었으니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고쳐서 1956년 결국 제3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당이 권력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정치를 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자유당 정권에서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그 결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말이죠.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지요. 국민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이

의거
의로운 일을 크게 일으킴

항의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따지고 반대 의견을 밝힘

수호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

진짜 화났음을 알았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봐, 다시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을까 봐 겁을 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이승만을 제4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2. 부정 선거에 항거하다

1960년은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자유당 정권은 다시금 권력을 쥐기 위해 부정 선거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부정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은 특히 심했어요. 국민이 자신들을 무척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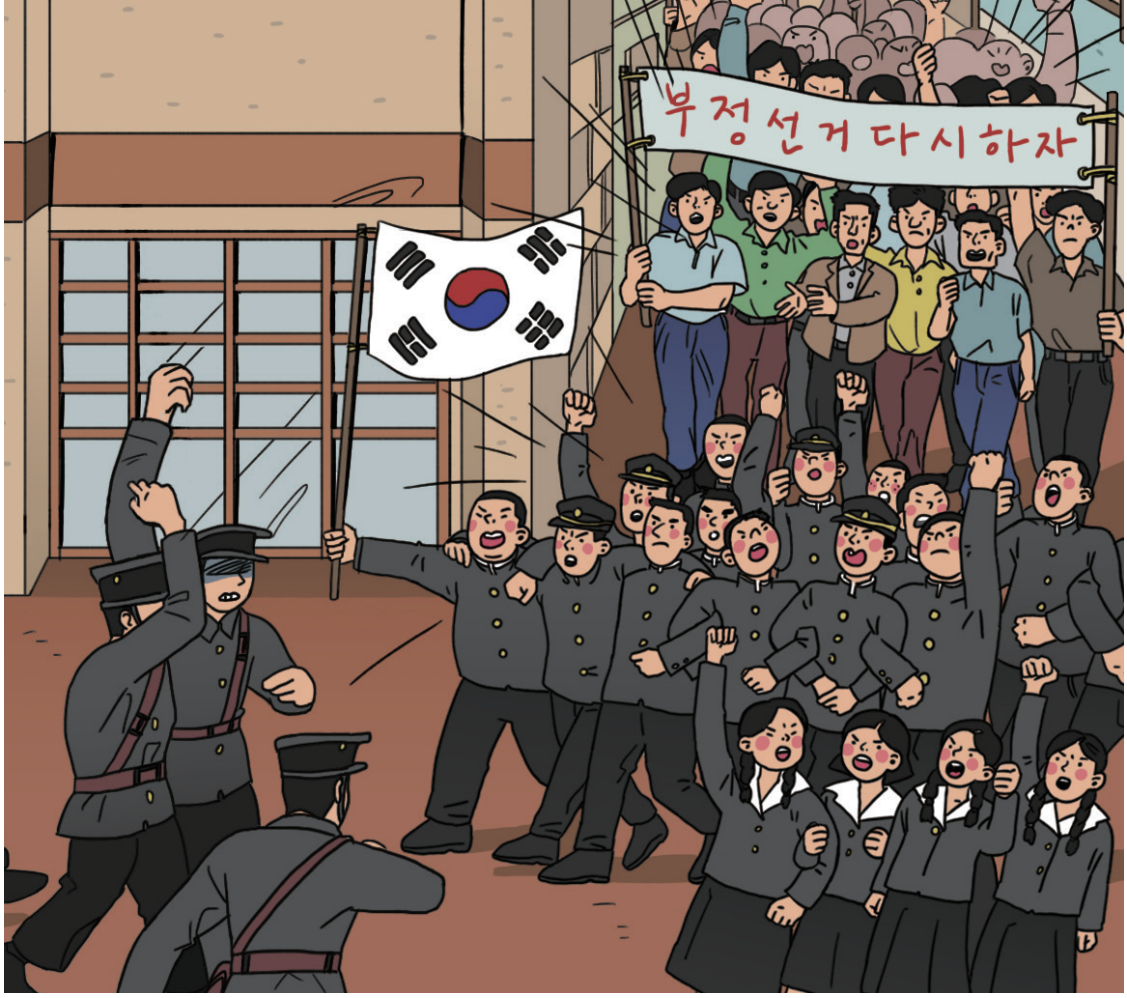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1960년 2월 28일은 대구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선거운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유당 정권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모두 학교에 나오게끔 했어요. 28일은 일요일이었거든요. 이들 고교생이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선거 연설에 가지 못하게 말이죠. 당시 고교생들은 정치에 꽤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25일에 그 사실을 알고는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이 비밀리에 모여 28일에 학교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침내 28일 일요일이 됐어요. **2.28 대구 학생운동**은 경북고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경북고 학생 800여 명은 운동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살리자!", "학원에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대구 시내로 나갔어요.

경북고를 시작으로 대구고,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 등 학생들이 물밀 듯이 시내로 쏟아져 나왔어요. 많은 시민은 학생들의 시

장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교육자이자 해방 후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가

2.28 대구 학생운동
2.28 대구 학생운동에 참가한 고등학교로는,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대구상업고등학교(지금의 대구상원고등학교), 대구농림고등학교(지금의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



위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날 저녁 7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어요. 경찰은 시위를 주동한 학생 30명 등 300여 명의 학생을 경찰서에 데려왔지만, 민심이 무서웠던 자유당은 고교생들을 전부 풀어주라고 경찰에 지시했어요. 경찰은 대구 고교생들을 모두 풀어 줬지요. 대구 고교생들의 시위는 전국 고등학교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은 마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 마산 3.15 의거는 왜 일어났나요?

제4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 정권에 아주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이승만을 상대할 수 있는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병을 치료

조병옥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

하기 위해 미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만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유당은 환호성을 올렸지만,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당선 확정됐지만, 아직 부통령 선거가 남았지요. 국민들은 부통령만이라도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 되길 바랐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유당은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악의 부정 선거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반공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으며, 공무원들까지 부정선거에 개입해 국민에게 자유당에 투표할 것을 강요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15일 아침, 마산 민주당이 선거 포기를 선언하자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거리로 나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어요. 이에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쏘자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고, 경찰들은 시위대를 체포하여 가두기에 이르렀어요. 경찰에 체포당한 학생과 시민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정부의 강경한 진압에 시위가 잠잠해질 무렵 1차 의거 때 행방불명이 됐던 김주열의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어요. 김주열의 얼굴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는데, 마산 시민들은 이에 격분하여 제2차 의거를 일으켰어요. 이 의거에서 2명이 희생되고 250명이 다치거나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했지요. 하지만 마산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마침내 전국으로 확대되어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기념일 속의 인물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

김주열 열사
출처: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1960년 김주열 열사는 전북 남원에서 형과 함께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마산에 갔다고 합니다. 3월 14일,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김주열은 3월 15일 마산에서 전개된 부정 선거 반대 시위에 참여했어요.

당시 17세였던 김주열 열사는 이 시위에 참여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지요.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에 남원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마산 시내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하고 4월 11일 남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11시경 마산 중앙 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에 의해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발견되었지요. 마산 시민들은 분노해 잠시 잠잠했던 시위는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국 규모의 시위로 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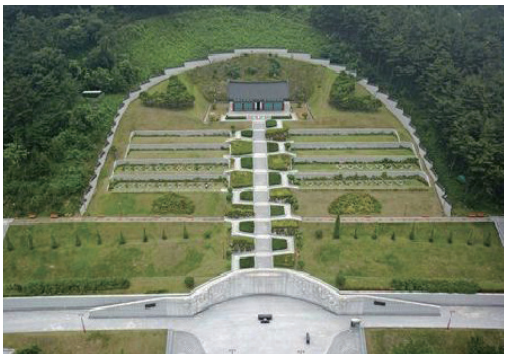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4월 13일 밤 11시 마산에서 출발하여 14일 아침 남원 선산에 묻혔어요. 그의 고귀한 죽음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답니다.

주검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도화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 3.15 민주 묘지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성역로 75
전화 055)253-9315, 256-3152
홈페이지 http://315.mpva.go.kr

■ **단체 참배 및 기념관 관람 가능 시간**
관람 시간 09:30~17:30 (월요일 휴관)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태극기 그리기, 태극 바람개비 만들기
– 애국가를 불러요
– 나라사랑 퀴즈, 삼행시 이벤트
– 나라사랑 국화꽃 접기, 감사 메시지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등
– 어린이체험관 운영

3.15 의거 발원지 – 창동

마산시 옛 민주당 건물 뒤편의 3.15 의거를 기념하는 조형물

이곳은 당시 마산의 중심지로, 민주당 당사가 있었던 곳이다. 부정 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이곳 창동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다.

1.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국회의원 ② 투표 ③ 대통령 ④ 시민

2. 2.28 학생 운동이 일어난 도시는?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구 ④ 부산

3.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 ) 안에 자유롭게 써넣으세요.

나에게 있어 3.15 의거는 ( ) 날입니다.

정답: 1. 투표 2. 대구

8장 4.19 혁명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 바로 알기

1960년 4월 19일 3.15 부정 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으로 시민들이 가세하며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1. 4.19 혁명은 무슨 날인가요?

우리는 앞에서 대구 2.28 학생운동이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3.15 의거의 불씨가 꺼질 때쯤 김주열 열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되살아나 전국을 뒤덮을 정도로 번진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반성도 하지 않고 마산에서 일어난 의거는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이에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마산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경찰의 대학 출입 금지와 평화적인 시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평화롭게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맞이한 건 경찰과 **모의**한 반공청년단이었어요. 불법 단체였던 **반공청년단** 소속 사람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마구 때렸어요. 학생들은 거리에 쓰러졌지요.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군."

"그럼요. 혼 좀 났으니 조용해질 겁니다."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이번 일로 대학생들이 시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모의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

반공청년단
1960년 자유당이 3.15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그러지 않았어요. 4월 19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으니까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서울에선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지요. 시민들의 시위 참여에 놀란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급기야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군인이 아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먼저 총을 쏘면서 문제가 되었어요.

계엄령

대통령이 국가 비상 시 헌법의 일부 기능을 일시 정지하고 군인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도록 내리는 명령.

탕 · 탕 · 탕.

이 총격으로 전국에선 어린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18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부상자 또한 6,026명이나 되었지요.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을 그만두게 하고, 자유당 **총재**에서 물러나며 경찰에 잡힌 학생과 시민들을 풀어 주었지만, 사태를 걷잡을 수 없었어요. 4월 25일과 26일에는 서울 시내 대학 교수들도 서울 시내에서 시위에 참여하였어요.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하며 5월 29일 한국을 떠나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어요. 마침내 국민이 승리한 것이지요.

비록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를 4.19 혁명이라고 한답니다.

총재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망명
정치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감

2. 4.19 혁명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자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한 임시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총선거가 시행되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1당이 되었지요. 이에 장면이 총리,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과 잦은 시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개혁정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은 무너지고,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도 이날 이후 다시 시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윤보선
4.19 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붕괴된 뒤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됨

정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3.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의원내각제

4.19 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헌법도 고쳐 대통령 중심제를 버리고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지요. 의원내각제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민주당이 총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하여 장면이 총리가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윤보선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관계로 국가 원수 대접만 받았어요. 실제적인 권력은 총리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1년도 못 되어 폐지되었어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내각을 무너뜨렸고,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었기 때문이랍니다.

함께 배워요

4.19 혁명 국민문화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13년부터 시작된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립 4.19 민주묘지 및 서울시 강북구 일원에서 열려요.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 4.19 혁명 국민문화제 홈페이지: http://www.419festival.org 참조

4.19 의거인가요, 4.19 혁명인가요?

한동안 4.19로 불리다가 1993년 국민이 수립한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비로소 4.19 혁명으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지요. 그 결과 4.19 묘지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답니다.

4.19 혁명의 전개 과정

대구 2.28 학생운동(의거) → 3.15 부정 선거 → 마산 3.15 의거 → 4.18 폭력 조직인 반공청년단의 고려대생 테러 → 4.19 혁명 → 대학교 교수들의 시위와 전 국민의 저항 →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남과 하와이 망명, 자유당 없어짐 → 장면 내각 탄생 →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남 → 4.19 혁명은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 4.19 민주 묘지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8길17(수유동 산9-1)
전화 02)996-0419
지선버스 강북01, 1119(4.19 방향), 1126(4.19 방향), 1144, 1165, 1166
간선버스 104, 109, 120, 144, 151, 153
도시철도 우이 신설 도시철도 이용 시 도보 5분(600m)
홈페이지 http://419.mpva.go.kr/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는 국립 4.19 민주 묘지를 방문하면 4.19 혁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가 체제는 무엇일까요?

① 대통령제 ② 이원집정제 ③ 의원내각제 ④ 독재

2.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 ) 안에 자유롭게 써넣으세요.

나에게 있어 4.19 혁명은 ( ) 날입니다.

정답: 1. 의원내각제

9장 5.18 민주화 운동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바로 알기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상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함. 국가는 5월 계승 운동의 일환으로 1997년 5월 법정 기념일로 제정.

1979년 가을부터 1980년 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1. 12.12 사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이로써 유신 체제가 막을 내렸지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맡겼어요. 하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정호용 등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를 경계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넘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와 장태완·정병주 등을 강제로 끌고갔어요. 대통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위협에 13일 새벽 정승화의 불법 **연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12.12 사태라고 해요.

시해
부모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다.

신군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직한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은 군 장성들을 가리키는 말.

연행
강제로 데리고 감.

2.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벌어진 민주화 운동 시기를 말해요. 1980년 봄, 당시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어요.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특히, 당시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정치인들은 모여서 5월 20일에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욕심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학생들과 시민들은 신군부를 믿지 못하게 되자 5월 14일과 15일에 거리로 나와 그들을 **규탄**했어요.

규탄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잡아내어 따지고 나무람

신현확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며 시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지요. 학생과 시민들은 정부 말을 믿기로 하고 시위를 멈추고 모두 집으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신군부는 국민들을 배신했어요. 그들은 5월 17일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며 김대중·김종필 등 정치인들을 체포했어요. 5월 20일에 열려고 했던 국회도 대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공수부대 등 군부대를 투입했어요. 이로써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의해 막을 내렸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비극인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되었지요.

프라하의 봄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 자유화운동

3. 5.18 민주화 운동

서울에서 시작한 민주화를 위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러자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을 더욱 탄압했어요. 대학생들이 모이지 못

하도록 휴교령을 내리고 군인들을 학교마다 배치했어요.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입구를 막고서, 학교로 들어가려는 대학생들을 곤봉으로 때렸어요. 이에 대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며 외쳤어요.

"학교 가는 걸 왜 막느냐, 휴교령을 철회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학생들이 계엄군의 손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화가 나서 군인들에게 "왜, 죄 없는 학생들을 그리 심하게 때리냐!"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계엄군은 항의하는 시민들도 마구 붙잡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계엄군의 시위 진압 모습에 광주 시민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도 그들은 가혹하게 다루었지요. 공수부대 계엄군의 이런 시위 진압 모습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졌어요. 5월 19일엔 11공수여단을 추가로 광주에 보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가혹하게 진압하도록 했어요. 20일에는 3공수여단이 광주로 보내졌어요.

21일에는 전남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쓰러졌어요.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하자 시민과 학생도 대응하기 위해 무장했어요. 그리고 계엄군과 맞서 싸웠지요. 계엄군은 일단 철수하기로 하고 21일 광주에서 물러났어요.

계엄군이 물러난 21일부터 25일까지의 광주는 평화로웠어요.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품이 부족하면 너도나도 채워 주었어요. 5월 26일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이란 작전명으로 광주로 다시 들어왔고, 마침내 27일 전남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시민군의 저항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기념일 속의 인물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위르겐 힌츠페터는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적인 모습을 방송용 필름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예요. 그는 일본 특파원이었는데 광주에서 큰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는 5월 20일 오전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몰래 들어갔어요. 당시 광주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그는 그날의 충격적인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위르켄 힌츠페터와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모습
출처: 노컷뉴스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할 때도
이렇듯 참혹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필름에 담은 광주의 참상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가 광주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폭도'가 광주를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만 국민들에게 알려줬지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광주의 진실은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몰래 찍은 광주의 참모습을 양철 깡통에 넣고 과자더미 속에 숨겨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독일 제1 공영방송 뉴스 시간에 방송됐어요. 또 여러 나라에서 그의 필름을 받아 뉴스 시간에 내보내 전 세계가 광주의 비극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주의 참상을 기록한 영상을 알게 된 건 몇 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취재활동을 하다가 1986년 11월에 광화문에서 경찰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한 뒤 1995년 기자 생활을 그만두었어요.

"내 필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는 자기가 죽은 다음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2016년 1월, 8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고 2016년 5월 16일 그의 유언대로 손톱과 머리카락 그리고 유품 등이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안장되었답니다.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위르겐 힌츠페터의 손톱, 머리카락, 유품이 안장된 모습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알아보기로 해요.

지워지지 않는 역사,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영화가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작되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많은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영화는 〈칸트 씨의 발표회〉로 알려졌어요. 사진작가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칸트 씨가 전투경찰에 잡혀가면서 5.18 민주화 운동 때 실종자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괴로워한다는 내용이죠. 1989년에는 〈오! 꿈의 나라〉가 제작되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뒤 겪게 되는 여러 사람의 갈등과 모순을 담은 **독립영화**예요.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부활의 노래(1991년)〉가 제작되었어요. 당시 시민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단식 투쟁을 하다 숨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박기순 등 실존 열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제작되었어요.
1996년에 제작된 〈꽃잎〉은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그린 최초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어요. 〈화려한 휴가(2007년)〉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다룬 영화예요. 당시 벌어진 폭력의 참혹함을 전달해 주었지요.
이밖에도 〈박하사탕〉, 〈오래된 정원〉, 〈스카우트〉, 〈26년〉, 〈오월애(愛)〉 등이 있는데, 씻을 수 없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처와 풍경 등을 간접적으로 담은 영화예요. 그리고 2017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광주까지 태워다 준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린 〈택시운전사〉가 제작 상영되었답니다.

독립영화 흥행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한 영화를 말함.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전남대학교 정문

5.18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 1호로 지정된 곳으로, 1980년 5월 18일 대학교 문을 닫는 휴교령을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계엄군이 처음으로 충돌한 곳이다. 이곳은 공수부대 계엄군의 혹독한 진압으로 광주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 **전화** 062)530-5114

국립 5.18 민주 묘지

이곳에는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 34번지)
전화 062)268-0518
홈페이지 http://518.mpva.go.kr

국립 5.18 민주 묘지 어린이 체험학습

운영 시간	09:00~17:00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상영(민토야! 민주마을을 구해줘) · 어린이 참배하기 · 판화 찍기(추모탑/추념문/참배 모습) · 종이 국화 만들기 · 워크시트 교육 등
예약 문의	062-268-5189

국립 5.18 민주 묘지 홈페이지에서도 사이버 참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신군부가 일으킨 반란은 무엇일까요?

① 10.26 사태 ② 3.15 의거 ③ 12.12 사태 ④ 5.16 군사 정변

2. 비극적인 광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는 어느 나라 기자일까요?

① 미국 ② 영국 ③ 독일 ④ 프랑스

3. 민주화 운동을 공부한 우리 어린이들이 민주 의식을 키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예) 공공질서 지키기

4.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 ) 안에 자유롭게 써넣으세요.

나에게 있어 5.18 민주화 운동은 ( ) 날입니다.

정답: 1. 12.12 사태 2. 독일

한눈에 보는 보훈기념일

3월
- 3·1절(3월 1일)
- 3.15 의거(3월 15일)
- 서해수호의 날(넷째 금요일)

4월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4월 13일)
- 4.19 혁명(4월 19일)

5월
- 5.18 민주화 운동(5월 18일)

6월
- 현충일(6월 6일)
- 6.25 전쟁(6월 25일)

7월
-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

8월
- 광복절(8월 15일)

11월
- 턴투워드부산(11월 11일)
-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